한국인으로 귀화한 서울 삼성의 센터 라틀리프는 다음 시즌 KBL리그에 참가할 외국인선수 가운데 트로이 길렌워터의 참가 여부를 아주 궁금해 한다. 길렌워터는 품행이 나빠 2년간 KBL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기량만은 빼어난 선수이기에 영입을 탐내는 팀이 많다. 사진제공 | KBL

KBL 새 외인제도, 왜 라틀리프에 맞추나?

〈삼성〉

바스켓볼 브레이크

2m미만 키·연봉 2명 합계 최대 70만불 제한
"라틀리프보다 크지 않고 연봉 덜 받으란 말"
몇몇 구단, 대항마 길렌워터 컴백 벌써 관심

"다음시즌에는 길렌워터가 뛸 수 있는건가?"

최근 한국국적을 취득한 서울 삼성의 센터 리카르도 라틀리프(29·199cm)는 구단 관계자에게 다음시즌 트로이 길렌워터(30·197cm)가 KBL에서 뛸 수 있는지 여부를 아주 궁금해 했다. 길렌워터는 국내 농구 팬들에게 익숙한 선수다. 2014~2015시즌 고양 오리온, 2015~2016시즌 창원 LG 유니폼을 입고 활약했다. LG시절에는 51경기에서 평균 26.2점을 기록하면서 득점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길렌워터, 외인들에게 '공포의 대상'

길렌워터는 최근 2시즌 동안 국내 프로농구 무대에 서지 못했다. 2015~2016시즌 자주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돈을 세는 동작을 하고 작전타임 시간에 중계방송 카메라를 향해 수건을 던지는 등 돌발행동을 해 KBL이 2년간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 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했다.

기량만 놓고 본다면 길렌워터는 프로농구 최고의 선수가 되기에 모자람 없다. 상대를 압도하는 파워는 기본이고 기술까지 갖췄다. 득점 반경이 골밑에만 치우친 것도 아니다. 미들레인지 게임과 3점슛까지 강점이 있어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막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틀리프는 길렌워터에게 고전을 면치 못한 선수 가운데 하나다. KBL이 길렌워터에게 트라이아웃 참가자격을 제한했을 때 삼성에서는 내심 이를 반기기도 했을 정도다. 삼성 이상민(47) 감독은 "라틀리프가 길렌워터와의 매치업을 항상 힘들어했다. 그래서 길렌워터가 뛰는 것을 반기지 않는 것 같더라"면서 웃었다. 라틀리프 뿐 아니라 찰스 로드(KCC), 데이비드 사이먼(KGC) 등 KBL 장수 외국인 모두가 길렌워터를 부담스러워 한다. 로드는 "내가 상대해 본 선수 중에서 포스트업을 가장 잘하고 힘까지 좋은 선수다. 거기다 외곽슛까지 쏜다. 막기 어려운 선수다"고 했다.

길렌워터는 지난해 여름 중국 2부리그에서 강정수 감독이 이끄는 산시 울브스 소속으로 챔피언결정전에서 평균 40.6점을 기록하며 팀에 우승을 안겼다.

●신장제한, 누구를 위한 룰인가?

KBL이사회는 다음시즌 외국인선수 신장제한을 더 낮췄다. 기존 제도에서 장신선수는 신장제한이 없었지만, 다음시즌부터는 200cm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자유계약이라고 하지만 연봉상한선도 2명 합계 최대 70만 달러로 정했다. 이 가운데 1명에게 50만 달러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해외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라틀리프의 적정 연봉은 35만~45만달러 사이다. 결과적으로 KBL이사회의 결정이 철저하게 라틀리프를 기준으로 맞춘 듯 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 구단 감독은 "라틀리프가 귀화를 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리그의 제도가 특정 선수를 기준으로 맞춰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틀리프보다 큰 선수도 데려오지 말고, 비싼 선수도 데려오지 말라는 의미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미 몇몇 구단은 길렌워터의 근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다음시즌 외국인선수 제도의 기준점인 라틀리프를 제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구단 감독은 "자유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구단이 필요한 선수를 자유롭게 영입하면 되지 않는가. 왜 KBL수뇌부의 뜻에 맞는 선수를 데려와야 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김호철 감독

차해원 감독

김호철·차해원 감독 남녀배구 전임감독에

2018자카르타AG·2020도쿄올림픽 맡아

대한배구협회(이하 협회)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2020도쿄올림픽을 책임질 남녀 국가대표팀 전임감독을 뽑았다. 협회는 7일 감독 선발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독을 발표했다. 원래 8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는 것이 순서겠지만 대한배구협회 오한남 회장은 "보안이 어렵다고 판단해 7일 밤 알렸다"고 말했다.

남자대표팀은 김호철 감독이 사실상 재신임됐다. 김 감독은 직전 대표팀을 맡았다. 대표팀에 선수 차출이 잘 안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7국제배구연맹(FIVB) 월드리그(5승4패, 6위)와 아시아남자배구대회(3위)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다.

여자대표팀은 차해원 전 GS칼텍스 수석코치가 선임됐다. 두 대표팀 전임감독의 임기는 아시안게임을 단위로 4년이 보장된다. 단 2단계에 걸쳐 중간평가를 받는다. 1단계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남자)과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여자)다. 이어 2020도쿄올림픽에서 두번째 검증을 받는다. 이를 통과해야 2022년 아시안게임까지의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이 탓에 배구계에서 '협회가 전임감독의 의미를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온다. 극단적으로 아시안게임에서 실패하면 불과 6개월 만에 전임감독직에서 낙마할 수 있다. 한 배구인은 "성적이 나지 않으면 감독을 교체하면 된다. 굳이 이렇게 임기에 관한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임감독의 책무는 단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부일 수 없다. 중장기적 대표팀의 자원을 육성하는 방향성이 절실하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라도 임기 보장이 안된 현실에서 길게 보는 안목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런 여건에서 김 감독과 차 감독은 '투 트랙'으로 대표팀을 이원화시켜 운영할 것이 유력하다. 가령 남자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 최정예 A대표를 투입하고, 월드리그에는 미래자원이 경험을 쌓는 방식이다. 여자대표팀 역시 '포스트 김연경(중국 상하이) 시대'를 대비할 시점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전랜, 김주성에게 '인천AG 추억을…' 은퇴투어를 벌이고 있는 원주 DB 김주성을 위해 인천 전자랜드가 7일 DB와의 홈경기에 앞서 기념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전자랜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공인구에 당시 엔트리에 들었던 모든 선수의 사인을 받아 김주성에게 선물했다. 사진제공 | KBL

DB마저 잡은 전랜…'밀러 효과' Go? Stop?

밀러 뛴 4경기 3승 1패…수비 안정 일조
유도훈 감독 "9일 LG전까지 보고 결정"

정관장 프로농구 KBL 2017-2018

전자랜드가 또 다시 외국인선수 교체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인천 전자랜드는 7일 인천삼산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5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두 원주 DB에 93-80으로 이겼다.

전자랜드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 4라운드까지 상대전적에서 1승3패로 밀렸던 1위 DB의 공격을 무력화 시키면서 거둔 승리였기 때문이다.

전자랜드의 수비 안정화에는 대체 외국인선수 네이트 밀러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조쉬 셀비의 부상 일시대체 선수로 전자랜드 유니폼을 입은 밀러는 특유의 스틸 능력을 뽐내고 있다.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끈끈한 수비로 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볼 소유욕도 많지 않아 포인트가드 박찬희가 살아나는 효과까지 제공하고 있다.

밀러는 16점·5리바운드·2스틸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다. 특히 DB의 주포 디온테 버튼(35점·8리바운드·5어시스트)을 경기 내내 괴롭히는 역할을 맡았다. 버튼은 35점을 기록했지만, 밀러의 집요한 몸싸움과 스틸 시도에 시달리면서 평소보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경기를 풀어나갔다.

밀러의 합류로 볼 소유 기회가 많아진 박찬희는 15점에 무려 6개의 스틸을 기록하면서 DB의 가드진을 압도했다.

이번 승리까지 포함해 전자랜드는 밀러가 뛴 4경기에서 3승1패를 기록했다. 지난시즌에도 외국인선수 교체를 놓고 고심했던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은 올 시즌에도 밀러의 완전 교체를 놓고 고민을 해야 할 처지가 됐다.

유 감독은 "9일 LG전이 (밀러의)대체기간 마지막 경기다. 더 지켜보고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자랜드는 24승19패를 기록하면서 KGC(23승19패)에 반 게임 앞선 단독 5위가 됐다.

반면 DB는 시즌 두 번째 2연패에 빠졌다. 허리부상으로 최근 2경기를 쉰 DB 두경민은 복귀전에서 8점·4리바운드·5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창원에서는 8위 LG가 3위 SK를 90-72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다.

인천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우리은행 9연승, 리그 우승 '매직넘버5'

박혜진·임영희 나란히 14점 활약
2위 KB스타즈와 3.5게임차 벌려

신한은행 2017-2018 WKBL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은 '신한은행 2017~2018 여자프로농구'에서 6시즌 연속 정규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시즌 초반 외국인선수 교체 등으로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제자리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번 시즌에도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정규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7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용인 삼성생명과의 경기에서 왜 극강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증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1~2쿼터에서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자랑했다. 특히 공격이 불을 뿜었다. 우리은행의 박혜진(14점·5어시스트)과 임영희(14점·3어시스트)는 주로 외국인선수와 호흡을 이뤄 2대2 공격을 시도했다.

박혜진과 임영희의 손을 떠난 볼은 어김없이 림을 갈랐다. 우리은행 초반부터 큰 점수차로 삼성생명에 앞서 나갔다. 두 사람은 자신의 득점 뿐 아니라 동료들의 득점까지 지원했다. 우리은행은 선발로 출전한 5명이 1쿼터에 모두 득점을 터트리며 26-9로 앞섰다.

2쿼터도 마찬가지였다. 박혜진과 임영희의 공격을 통해 삼성생명의 수비를 완전히 흐트러트린 우리은행은 2쿼터 시작 이후 2분여 동안 10점을 몰아넣으며 점수차를 더 크게 벌렸다. 우리은행은 어천와(17점), 윌리엄스(12점), 이은혜(6점), 김정은(6점) 등이 득점에 가세하며 49-20, 29점차까지 앞서며 2쿼터를 마쳤다. 주포 박혜진과 임영희가 2쿼터 후반 코트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점수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결국 72-56으로 삼성생명을 손쉽게 꺾고, 9연승 포함 24승4패를 마크했다. 2위 KB스타즈(20승7패)에 3.5경기차로 달아났다. 우리은행은 정규리그 우승 매직넘버를 5로 줄였다. 잔여 스케줄 가운데 2위 KB스타즈와의 맞대결은 2번 남았다.

용인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이제 100만 달러 대박의 꿈까지 딱 3경기 남았다. 3월10일 로드FC 046에서 100만 달러 토너먼트 결승 진출을 위해 케이지에 오르는 마지막 4명의 전사들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로드 FC 경기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 | 로드 FC

100만달러까지 3경기 남았다

토레스 등 4명, 내달 10일 로드FC 4강전

ROAD FC ROAD FIGHTING CHAMPIONSHIP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9일 개막한다. 이 대회가 끝나면 또 다른 올림픽이 열린다. 바로 MMA(종합격투기) 올림픽이다. 이는 로드FC가 진행하는 100만 달러 토너먼트 4강전을 가리킨다.

로드FC는 2016년 11월 중국 지역예선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A, B조, 러시아, 동남아시아, 일본까지 총 5개 지역예선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살아남은 선수는 단 4명. 브라질의 호니스 토레스(32, NOVA UNIAO), 러시아의 샤밀 자브로프(34, AKHMAT FIGHT CLUB), 일본의 시모이시 코타(31, BLOWS), 튀니지의 만수르 바르나위(26, TEAM MAGNUM/TRISTAR GYM)가 그 주인공이다. 4강 진출에 성공한 파이터들은 3월10일 로드FC 046에서 결승 진출을 위해 케이지에 오른다.

호니스 토레스와 샤밀 자브로프의 대결은 브라질과 러시아의 승부다. 이 두 나라는 대표적인 격투기 강국이다.

호니스 토레스는 브라질에서도 오지인 아마존 출신으로, MMA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며 훈련하고 있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목표다.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의 사촌형 샤밀 자브로프는 러시아 극동지역 출신이다. 러시아 MFP에서 활동하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4강까지 올랐다. 그라운드 상황에서 끈질기게 상대를 공략해 지치게 만드는 파이터로 상대의 장점을 지우는데 일가견이 있다.

반대편 시드에서는 일본의 시모이시 코타와 튀니지의 만수르 바르나위가 맞붙는다. 시모이시 코타는 일본 파이터 특유의 그래플링 기술이 좋다. 과거에 비해 일본 격투기 시장이 많이 침체된 상황에서 일본 대표로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돈 걱정 없이 MMA 훈련에만 전념하는 게 목표다.

만수르 바르나위도 가족들을 위해 우승이 절실하다. 튀니지 출신으로 러시아 M-1, 영국 BAMMA의 챔피언을 지냈다. 예선전부터 패배가 없었고, 8강에서 몽골 복싱국가대표 난딘에르덴을 TKO로 제압해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파이터는 끝판왕 권아솔과 100만 달러의 상금을 놓고 최종 대결을 펼친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